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 주요 보험사 1/4분기 실적 악화

□ 유럽 주요 대형 보험사들의 2009년 1/4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- 유럽 최대 보험그룹인 Allianz(독일계)의 2009년 1/4분기 운영이익은 Dredner Bank의 적자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1%감소한 13억 유로인 것으로 나타남.
- 유럽 2위권인 AXA(프랑스계)의 1/4분기 생명보험(연금포함) 신규계약 현재가치는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 감소와 자산관리 사업부문의 적자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9.9% 감소한 2억1천2백만 유로인 것으로 나타남.
- 유럽 10위권 규모인 Zurich Financial Services(스위스계)는 -63%의 투자손실을 시현함에 따라 1/4분기 영업이익은 40% 감소, 전체 이익은 75% 감소함.
- 유럽 13위권 규모인 Standard Life(영국계)는 2008년 판매한 투자채권 손실로 인해 2009년 1/4분기 신규계약 현재가치는 전년동기대비 20.0% 감소한 36억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남.

□ Allianz의 1/4분기 실적 감소는 2007년 중반 자산관리와 종합적인 방카슈랑스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인수한 Dredner Bank의 적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남.

- 2009년 1월에 매각된 Dredner Bank가 Allianz의 2008년 사업실적에 끼친 손실 규모는 64억 유로였으며, 이러한 적자는 2009년 1/4분기에도 4억 유로의 손실을 입힘.
- Allianz는 2009년 말 또는 2010년에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여, 2009년과 2010년의 영업이익이 각각 7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생명보험사업 부문에서는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대대적인 상품구조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힘.
- 한편, Allianz는 지급준비율이 최소 요구수준인 100%를 훨씬 상회하는 158%로 자본건전성은 양호하며, 추후 자본확충 계획은 없다고 밝힘.

Allianz	2008 Q1	2009Q1
영업이익	€2.2bn	€1.3bn (-41%)
수입보험료	€27bn	€27.7bn
지급준비율	161%	158%

(Financial Times 4/29, 4/30, Bloomberg 5/6, 5/7)